대상을 수상한 윤명희씨의 앵콜 무대.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 확대와 생활의욕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된 '제12회 전국 장애인가요제'가 지난 17일 오후 4시에 열렸다.

전북 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가 주최하고 전주매일신문사가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황의옥 장애인가요제 제전위원장, 김양옥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장, 조봉성 전주매일 대표 등 관계자와 시민 1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양옥 소장은 인사말에서 "장애인 가요제가 성공리에 열리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장애인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의 건강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봉성 전주매일 대표는 "이 행사를 통해 전북지역과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는 물론, 문화예술분야에 발전해 장애인의 삶이 풍요로워지길 기원하며 모두가 힘내자"고 말했다.

황의옥 제전위원장은 축사에서 "장애인가요제를 통해 스스로 쟁취하는 긍정의 힘과 희망이 그 기회를 확대하고, 또한 이를 돕고 지지할 수 있는 사회적 연대와 소통의 창구가 다양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가요제에서는 윤명희(제주)씨가 대상을 차지했으며, 이세은(익산)씨가 금상, 백동용(경남 거창)씨와 강창일(제주)씨가 은상을 수상했다.

어려움 딛고 용기있게 나서 있는 힘껏 열창

행사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양옥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장(사진 왼쪽부터), 조봉성 전주매일 대표, 황의옥 제전위원장.

무대 위에서 열창

이날 가요제에 참가한 김유미씨가 무대 위에서 열창을 하고 있다.

초대손님의 무대

문정태씨의 마술쇼(사진 위부터), 관람객들을 바라보고 있는 초대가수 오대성, 초대가수 윤혜솔씨의 열창에 무대 아래에서 신나게 춤을 추고 있는 관람객들.

꽃다발을 드립니다

김양옥소장에게 임이례님의 후원금 및 꽃다발 증정.

수상의 기쁨

김용철 심사위원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는 수상자.